

당뇨병에 '심바스타틴+라미프릴' 효과

가천의대 길병원과 미국 NIH 연구결과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환자에게 '심바스타틴(simvastatin)과 라미프릴(ramipril) 병합요법'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 결과로 'simvastatin과 ramipril 병합요법'이 각각의 단독요법보다 혈압과 고지혈증을 월등히 개선하면서, 내피세포 기능과 항염증 효과와 더불어 인슐린 민감도와 혈중 에디포넥틴(adiponectin)을 증가시키는 밝혀졌다.

그동안의 임상연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스타틴계열 약물과 혈압강화제인 라미프릴 약물이 위약군보다 심혈관계질환 발생을 약 30% 더 억제하고 관상동맥 협착을 개선함이 증명되었지만, 이는 단순히 나쁜 콜레스테롤의 감소와 혈압강화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혈관 내피

세포의 향상(혈관 이완 능력 향상, 항염증 반응, 경화반 안정성 증가 및 혈전 형성 방지 등의 다양한 기전)에 의한 것임이 최근에 밝혀졌다.

가천의대 길병원 순환기내과 고광관, 한승환 교수팀은 "이번 연구로 'simvastatin과 ramipril 병합요법'이 각각의 단독요법이나 최근 당뇨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 고용량 스타틴계열 약물요법보다 심혈관계 합병증과 당뇨병 치료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입증했다"며 "이 요법이 제2형 당뇨병 혹은 대사성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총 50명의 고콜레스테롤혈증(LDL100mg/dl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위약군과 실험군으로 나눠 2개월 투여, 2개월 휴식, 2개월 교차 투

여하는 무작위 이중 맹검 교차법을 이용하여 'simvastatin과 ramipril 병합요법'의 효과를 증명했다.

고 교수팀과 미국국립보건원 내분비내과 주임교수인 마이클 쿼온(Michael J. Quon)박사와 공동 연구한 이번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환자에서 simvastatin과 ramipril 병합요법의 부가적인 이로운 효과"라는 논문은 고혈압 분야의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Hypertension Journal 인터넷판 5월호에 게재됐다.

'에디포넥틴(adiponectin)'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서 많은 연구에서 에너지 대사와 더불어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며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에 관여하는 adipokine으로 당뇨병,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서 adiponectin이 감소되어 있다.

감압방식 디스크치료법 각광

국내서 90%의 높은 치료성공률 보고

비수술적 부작용 최소화

우주인처럼 무중력 상태의 치료가 척추디스크 등으로 인한 요통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8일 강남성모병원에서 개최된 2005년 대한신경통증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연수강좌에서 비수술적 요법인 디스크 감압치료가 약 90%에 달하는 성공률을 보인다는 임상사례가 발표됐다.

약 300여명의 신경외과 의사들이 모인 강좌에서 박진규 박사(박진규 병원장)는 "새로운 감압방식 디스크치료기인 'DRX 3000'은 미국에서 86%의 치료성공률을 발표하고 있으나 평택의 박진규병원에서 지난 3개월간 약 70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실제 임상 적용 해본 결과 90%에 달하는 치료 성공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까지 치료효능이 뛰어난 마땅한 보존적방법이 없어 수술적 접근이 많았었는데 'DRX 3000'은 매우 효능이 뛰어난 비수술적 치료법"이라며 "감압이라는 신기술의 등장



〈박진규 원장〉

은 요통치료의 새로운 장을 이룰 것 같다"고 소개했다.

박진규 박사는 "지난 3개월간 70명의 디스크환자를 선택집중 치료를 해본결과 치료성공률은 90%에 달했다"고 했다.

즉 수술의 대안 또는 수술전 1차치료전략으로 장점이 많은 신기술이라며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사례 발표에서는 여러건의 디스크요통환자의 치료 전후 MRI 영상사진을 비교 제시하며 DRX 3000으로 약 18회 치료한 결과 디스크탈출증이나 디스크 내장증환자의 경우 통증 지수 10에서 2-3정도로 요통이 완화되었다고 했다.

퇴행성디스크환자의 경우는 10에서 5정도로 요통이 완화되는 치료 결과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의료법인 영리화 자율에 맡겨야"

의사 종신면허 폐지, 사후관리 강화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설립을 허용, 의료공급자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송영관 부연구위원은 12일 「보건의료서비스시장개방과 주요 쟁점의 이해」라는 보고서에서 "영리법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게되면 의료의 공공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나 최근 고객지향적 의료환경의 변화를 감안, 자율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해외소비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 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을 국내 보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 육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시장개방의 주요 쟁점은 mode 3 교역인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과 mode 4 교역인 의료인력이동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의료기관 영리법인 불허와 요

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력 이동과 관련 의료인력 자격인정 및 면허관리체제의 정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사의 종신면허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 의료면허처럼 일정기간 후 지속적으로 면허를 갱신하도록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의료활동 영역에 제한이 없는 개업면허, 해당 전문 과목 이외의 환자는 볼 수 없는 전문의면허, 예방과 보건활동을 전담하는 공중보건의면허 등으로 면허의 종류를 다양화하면 면허 획득에 따른 불필요한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月刊 成人病

등록번호 서울 라-07526(1980. 2. 18 등록/ 2001. 7. 27 변경)

발행인 유동준 편집인 유형준 주간 이강찬 편집국장 황보승남 인쇄인 김영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성인병예방협회

우편번호 137-06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51-19

총무부 588-1461

편집부 588-1462

팩스 588-1460

mail@acdp.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acdp.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무료 배포

당뇨인의 선택!!! 월-케어 인슐린 펌프



CEO120
ISO 9001:2000
ISO 13485:2003

서울 강서구 화곡7동 401-5 삼화빌딩 3층 (주)메디에스 TEL : 2607-1680

- 월-케어 인슐린 펌프의 장점 -

1. 52g의 가벼운 무게와 작은 크기!!
2. 인슐린 저장 용량 300단위!
기초량이 3분에 한번씩 주입되어 공복 시 혈당조절 원만!!
3. 식사 인슐린량 1단위가 20초 동안 서서히 주입. 인슐린 흡수를 최대화
4. 단순한 프로그램 설계로 일반 당뇨인들의 사용이 용이!!

위의 4가지 장점과 함께 기능에 비해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www.medi-yes.com에 들어오시면
인슐린 펌프를 경험할 수 있는
'가상 월-케어 연습'이 있습니다.